문화 작품 속의 심리학

20165326 이인호

내가 과제를 처음 받았을 때 생각난 영화가 한 가지 있다. 바로 ‘나우 유 씨 미 : 마술사기단’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마술에 관련된 영화인데 예전에 이 영화를 볼 때는 ‘미스 디렉션’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는 몰랐는데 수업을 듣고 주의 깊게 영화를 다시 보니 수업에서 듣던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. 영화의 주인공중 한명인 잭 와일더가 뉴욕의 한 유람선위에서 숟가락 구부리기 마술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잭 와일더는 마술을 일부러 허술하게 하고 나서 옆에 있던 사람의 지갑과 시계를 훔쳐가는 장면이 나온다. 이 장면이 내가 찾은 첫 번째 장면이고, 두 번째로는 주인공 4명이 모여서 처음 마술 쇼를 하는 장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. 이 마술 쇼에서는 관객석에서 한 프랑스인을 무대로 불러서 프랑스에 있는 은행을 라스베이거스에서 순간이동을 해서 은행을 터는 장면이 나온다. 여기서는 무대로 나온 프랑스인에게 최면을 걸기는 했지만 주의를 분산시켜서 무대 밑에 있던 세트로 이동시키는데 이 사람은 그곳이 세트가 아니라 실제 프랑스에 있는 은행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.

다른 주제를 찾아보자면 영화에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나오는 대사가 있는데 이 대사에서 수업에 들었던 내용을 찾을 수 있다. 바로” 가까이 오세요 더 가까이 많이 봤다고 생각할수록 속이기도 쉬우니까”와 “가까이서 볼수록 보이는 것 이 없다”라는 대사인데 첫 번째 대사에서는 ‘사적 공간으로의 침투’를 찾을 수 있다. 수업에서도 배웠듯이 사적 공간에 성공적으로 침투하면, 경계심이 늦춰져서 마술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쉬워진다. 두 번째 대사에서는 ‘주의’를 찾을 수 있는데 사람이 마술을 너무 가까이에서 보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쉬워진다.

이 영화의 2편에서는 또 다른 주제를 찾을 수 있다. 바로 ‘착시’ 인데 영화의 끝부분에 가면 주인공인 다니엘 아틀라스가 비를 멈추고 다시 올라가게 하는 마술이 나온다. 이 마술의 해법을 찾아보니 빛을 일정 주기로 깜빡이면 물방울이 마치 멈춰있거나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듯한 착시가 생긴다고 한다.

이 두영화를 몇 번이나 봤지만 수업을 듣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보였다. 이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를 볼 때도 수업에서 배운 것이 있나 생각하면서 보면 더 재미있을것 같다.